

하나님이 엘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를 열 때 그 사무엘을 통해 회복시킨 것이 미스바의 축복이다. 전 이스라엘이 모였기 때문에 미스바 대회라고도 하고,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라고 부른다. 이 미스바 대회, 미스바 운동이 왜 중요했나?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된다.

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가? 우상 숭배를 하는 배경에서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 때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언약을 받은 민족이었다. 그들을 큰 민족으로 축복하고, 그들의 대적을 무너뜨려, 그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.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 노예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홍해를 가르고 다시 가나안으로 보냈다.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있을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그 땅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(수2:10-11).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, 그 땅을 정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.

1.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?

- 1) 너무 참담한 실패를 계속했다.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,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진다.
- 2) 누구의 모습인가? 왜 역사는 이런 고통과 실패가 반복될까?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. 그것이 창3장 이후 타락한 인생의 현주소이다.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,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없이는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대적들에게 속고,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다.
- ① **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하니 계속 세상에 빠지고, 세상 바라보고 산 것이다. 그것이 우상숭배였다(골3:5).** 마치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줄 알고 자꾸 다른 힘,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.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. 그 분만 유일한 창조자이고, 그래서 그 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, 그 분이 인생을 다스릴 때 어떤 능력과 축복이 오는 것을 다 놓치고 산 것이다.
- 어느 정도냐? 8장이 나오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어 그런 일이 오는 줄 알고, 왕의 제도를 구한다. 그래서 역지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다.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역지를 부려서 얻는 것은 오래 못 간다. 그래서 사울이 무너진다.**
- ② **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? 하나님이 주신 약속(언약)이 뭔지를 모른 것이다.**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의 백성과 온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.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.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다(5-6장에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아 가지고 있다가 더 저주 받은 이유). 내가 언약이 없는 불신자와 뭐가 다른지 믿음을 회복하고, 자존심 가지고 살라. **구원받은 순간 내가 영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잡으라.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,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(엡1:3-5).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우리가 그 분을 정말로 바라볼 때는 그 분이 이기게 하시고,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(재창조, 재생산, 제도전)**
- ③ **이 언약이 내게 각인, 뿌리, 체질이 되게 만들라는 이유가 그것이다.** 언약이 없으니 대적이 와도 이길 힘이 없고 무너지는 것이다.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무너지고, 내 상처, 내 수존, 내 한계를 못 넘는 것이다. **강단 메시지를 통해 한 주간의 언약을 잡고, 매일 묵상하면서 오늘의 언약을 잡으라. 평생의 언약도 정리가 된다.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, 나와 그 후에 속에서 그 증거를 보라(언약의 여정, 순례자의 여정, 승리자의 여정)**

2.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에 모여 하게 하신 일 세가지가 뭔가?

- 항상 이 강단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를 잡으라(겔47장 언약)
- 1)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을 붙잡게 한 것이다. 그 분이 창조하시고, 그 분이 택하시고, 그 분이 구원하신 인생이다. 그 분만 나의 구원자, 대속자, 중보자이다. 아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. **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 분이 오직이다(행4:12)**
 - ① **오직 그리스도, 오직 하나님의 나라,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라.**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. 나를 다스리시며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이다. 내 능력 아니다. 성령의 능력이다. **공부도 이 축복 누리면서 하고, 직장 생활, 사업도 이 축복 누리면서 하라.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다.**
 - ② **이때 오직, 유일성,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가 오는 것이다.** 내 안에 오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유일성이 되고,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가 되는 것이다.
 - ③ **그것을 위해서 With, 임마누엘, 원네스로 역사하신다. 요셉을 비롯한 모든 험난트가 누린 축복이다.** 내 안에 함께 하시고, 내가 만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,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.
 - 2)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모든 대적을 이기는 망대로 붙잡게 한 것이다.
 - ① **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에 그 분이 나의 대적과도 싸우신다.** 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짓눌리고, 시달리고, 초라하게 사는가? 이 축복을 놓친 것이다.
 - ② **나를 지키고, 나를 위해 싸우시고, 내게 그 분의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다(그것을 "망대의 축복 회복")** 왜 하필이면 미스바에서 모인 줄 아는가? 그 "미스바"라는 히브리어가 "망대, 파수대"라는 뜻이다. 굳이 이 망대, 파수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? 전쟁에 필요한 것이다.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.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단어이다.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싸우시고, 승리를 주시는 언약이다(계17:14).
 - ③ **실제로 하나님이 보란 듯이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보라.** 블레셋 족속들이 감히 주의 백성들이 모여 언약을 회복하고, 기도하는 시간에 공격해 온 것이다. 그 대적들이 처절히 무너지게 하신다. 여기서 "에벤에셀"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(12절). 이 비밀을 전달받은 다윗은 평생 이 고백을 가지고(시62:2),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, 승리자의 증거가 된다(아4:4)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. 그 분이 승리자를 상징하는 "별"이라고 했다(계22:16).
 - 3) **마침내 이스라엘의 평생의 대적이 무너지고, 빼앗긴 모든 것이 회복되고,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.**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은 것을 흑암에게 빼앗기고 산 것이다. **이제는 일어나 승리자의 언약을 붙잡고, 살라.**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사단은(고전15:25) 반드시 우리 발 앞에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(롬16:20). 그리고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다.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전부 그리스도가 승리한 결과라고 했다(엡4:8)

결론-내 안에, 내 가정에 이 미스바의 축복을 회복하라. 교회를 살리고,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될 것이다.